

독자와 함께

나주 봉황중 조미옥 교사 "우리 아이들 NIE 교육 해 보니"



상상력·창의력 쑥~쑥 더 넓은 세상 보여요!

배 밭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농촌의 자연 해를 고스란히 받고 자라는 순진한 아이들지만 자극적인 영상이나 컴퓨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눈으로만 즐기려는 경향이 심하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수준별 수업이 NIE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전교생들이 모두 광주일보를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관심 있는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도 하고 자신의 의견도 적고 친구들과의 댓글도 받는 등 재미있는 소동이 펼쳐진다.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단계에서 친구들의 입장에 들어주는 여유도 생겨 잘하지는 못하지만 토론의 중요성도 알아간다. 친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챙겨주는 아량도 배운다.

학생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교실 안에서 꽃으로 피어난다. 정성과 성의만 있으면 된다. 강조하고 직접 쓰기도 하고 그려보게도 함으로써 인내력과 창의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자신만의 신문 파일 집을 만들게 했다. 학생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역시 우리 아이들은 나의 스승이다.

가위, 풀, 색종이 등을 구입하여 박스 안에 구비해두고 수업시간에 사용하니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잔소리하지 않아 좋고 학생들은 지루함에서 즐거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활동한 결과물들은 교실 뒷면에 전시해놓고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니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모두 즐겁게 하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NIE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여 볼 수 있고, 만들어 보고, 생각해 보고, 자기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 한다. NIE활동을 할수록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순발력이 뛰어나 교사인

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한 수 배운다. 학생들의 창의성은 우물 안에 있는 물처럼 길러 낼수록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IE 활동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즉, 편향된 정보만을 얻는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생각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교실이 확장되면 소란스러우며 뒷정리가 잘 되지 않아 교실이 어수선해져서 교사가 먼저 지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하찮은 생각일지라도 인정해주고 개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과 학생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탐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함께 희망을 품고 가는 것이다.

상상력이 힘이고 창의력이 경쟁이 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 NIE 수업이 더욱 즐겁다.

(나주봉황중 교사)

추억의 한컷



예나 지금이나 소풍은 즐거워!

1962년 유덕동 극락강변 일대. 예나 지금이나 강변은 더위를 식히는 휴식처였다. 많은 이들이 강변에 나와 나무 밑과 모래사장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소풍'은 역시 즐거웠다.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에서

칭찬합시다

"20여년간 248회 헌혈하신 시각 장애인 김병식씨 모든 장애인에 할수 있다는 신념 심어 주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묵묵히 헌혈에 참여해온 이가 있다. 광주시 서구 상무동에 사는 김병식(66·사진)씨이다. 올해 만 65세를 맞은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248회 헌혈에 참여했다. (전혈 54회, 혈장 194회)

1988년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헌혈을 시작한 그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헌혈을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헌혈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내 가족 중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 수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답했다.

후천적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기적인 헌혈 참여에 대한 의욕이 높아 헌혈이 가능한 날이면 언제나 헌혈의 집을 찾곤 한다.



그는 현재 장애인부흥회 헌혈기네스에 도전하고자 하는데, 이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며 말한다.

(김수정·조선대 헌혈의 집 간호사)

독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는 우리 고장 기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열린마당입니다. '숨겨진 자랑'에 실릴 시, 수필, 편지글, 사진 등 투고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대체부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팩스 062-222-4937. e-메일 opinion@kwangju.co.kr.

클릭! 맛집



시원·얼큰 '오감 만족' 장어탕 값싸고 국물도 진국 금상첨화

■광주 문흥동 '장어나라'

'먹으면 장작을 펴고 싶어진단' 말이 나올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장어. 과거 효자들이 어렵게 한 두 마리 잡아 부모의 입맛을 북돋우던 귀한 장어가 요즘에는 흔한 음식이 됐다.

하지만 특유의 비린내, 흙냄새 때문에 꺼리는 미식가들도 많다. 그만큼 제대로 맛을 내는 집을 찾기가 힘들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새터코아 앞 '장어나라'(사장 박미현)는 비타민A가 풍부한 여름철 으뜸 보양식 장어를 먹기 위해 물러든 미식가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이 집의 대표 차림은 장어구이(1인분 200g·1만2천원)와 장어탕(4천원)이다. 전북 고창 심원면 한 양식장에서 매일 아침 가져온 싱싱한 통천장어만을 쓴다.

이곳 장어를 고집하는 것은 고창 지역의 맑은 물 때문이다. 지하수나 인근의 물을 끌어다 쓰는 양식장 특성상 물이 중요하다. 또 가장 맛있다는 1년산 장어만을 골라 쓴다.

1년산 통천장어만을 사용 싱싱한 '장어구이'도 별미



<장어구이>

구이는 소금과 양념 두 가지. 삶이 단단하고 꼬리 지느러미가 상하지 않은 싱싱한 장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무런 양념을 바르지 않는 소금 구이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간수를 충분히 뺀 신선 천일염이 장어의 고소함을 더해준다.

사장이 직접 개발한 소스를 여섯 번 발라 내오는 양념은 장어 특유의 느끼함을 없애준다. 약쑥, 버섯, 사과, 배 등 40여 가지 한약재와 과일이 어우러진 양념을 전혀 타지 않게 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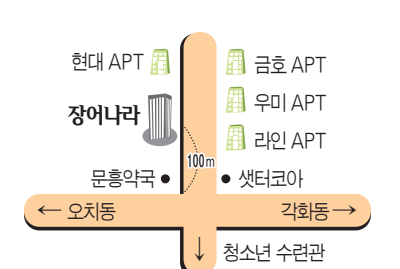
비밀은 손님상 불판 위에 올려진 자갈에 있다. 고구 양념을 발라 초벌구이를 한 장어는 남해의 깨끗한 바다에서 가져온 자갈 위에서 한 번 더 맛을 낸다. 자갈은 양념이 전혀 타지 않고, 기름을 짹 빼주는 효과가 있다.

함께 내오는 오이냉국은 사과식초의 상큼한 맛이 강해 장어의 느끼한 맛을 없애준다. 주인장 인심도 후해 구이 4인분을 먹으면 1인분은 그냥 골짜로 준다.

장어머리와 뼈를 곱게 갈아 무청을 넣고 끓인 장어탕은 무척 싸고, 국물도 진국이다. 찾는 이가 많아 자리를 잡지 못한 손님을 위해 포장 서비스도 해준다. 문의 062-264-9233. /오광복기자 kroh@

/사진=최현배기자 choi@

◇찾아가는 길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김미란 (780627-2573915)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분할공고
본 회사는 2009. 7. 8. 주주총회에서 그 영원의 임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파인포스트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전속하며, 주식회사 파인포스트는 본 회사의 제무를 연대 책임자로서 임명한다.

번영 공인중개사
☎062) 531-4665
동림2지구 동림병원앞
모 델
※수익성 좋은 물건 다량 확보※
▶신축모델(매매,임대)◀
매매 : 10억~35억선 (용자안고 3~20억부자)
임대 : 보증금3억~7억 월 : 800~2500만원선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진금 대출일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교육시설! 최고의 합격시스템!
일반직 공무원 특채 [기능직→일반직]
'09년 10월 24일(토) 필기시험 대비 예정
주말 특별 단독반 7월4일(토) 개강
이론반 2개월(7/4~8/30) 진도 완벽 완성
사회[김영채 교수] 매주 토요일 13:00~21:00 (8시간,8주)
행정학[임혁 교수] 매주 일요일 10:00~18:00 (8시간,8주)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www.dongbugosi.co.kr
공무원 합격률 1위 동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바로뒤 233-0509
선착순접수, 조기마감주의